

2024년 2월 22일 공보 2024-02-15호

보도자료

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2024년 2월 22일 통화정책방향 관련 참고자료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 배경”

(붙임 참조)

문의처: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팀장 박영환, 차장 최인협

Tel: (02) 759-4461, 4066 Fax: 759-4485 E-mail: mpdept@bok.or.kr

공보관: Tel: (02) 759-4028, 4016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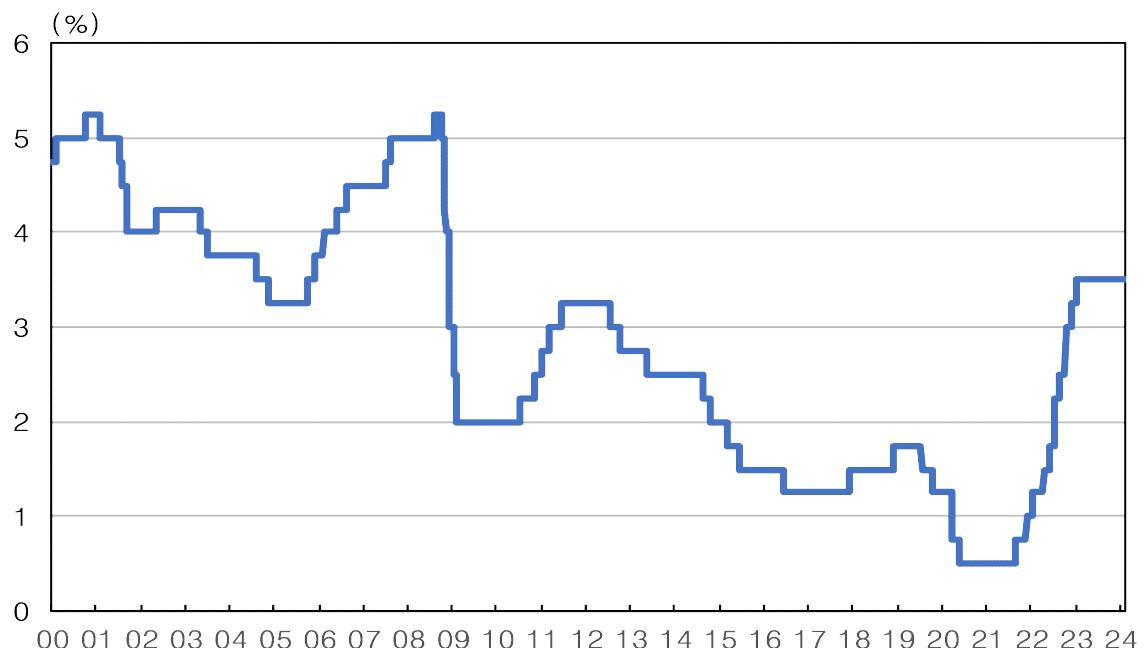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 배경

[정책결정]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물가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데다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 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대외경제 여건]

□ 세계경제는 둔화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국의 인플레이션은 낮아지고 있지만 목표수준으로 안정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경제지표

	2022	2023	23.1/4	2/4	3/4	4/4	23.11월	12월	24.1월
미국	GDP성장률 ¹⁾ (전기비연율, %)	1.9	2.5	2.2	2.1	4.9	3.3	-	-
	소매판매 ¹⁾ (전기비, %)	9.6	3.2	1.3	-0.1	1.7	0.7	0.0	0.4
	산업생산 ¹⁾ (전기비, %)	3.4	0.2	-0.1	0.2	0.4	-0.6	0.3	0.0
	ISM제조업 ²⁾ (기준=50)	53.5	47.1	47.2	46.7	47.6	46.9	46.6	47.1
	실업률 ¹⁾ (%)	3.6	3.6	3.5	3.6	3.7	3.7	3.7	3.7
	비농기취업자수증감 ¹⁾ (전기비 만명)	623.5	353.0	89.9	75.3	66.7	63.1	18.2	33.3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8.0	4.1	5.8	4.0	3.5	3.2	3.1	3.4
유로	근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6.2	4.8	5.6	5.2	4.4	4.0	4.0	3.9
	GDP성장률 ¹⁾ (전기비연율, %)	3.4	0.5	0.4	0.5	-0.5	0.2	-	-
	소매판매 ¹⁾ (전기비, %)	0.7	-1.8	-0.2	-0.1	-0.4	-0.1	0.3	-1.1
	산업생산 ¹⁾ (전기비, %)	2.3	-2.4 ⁵⁾	-0.8	-1.4	-1.1	0.0 ⁵⁾	0.4	2.6 ⁵⁾
	제조업PMI ²⁾ (기준=50)	52.1	45.0	48.2	44.7	43.2	43.9	44.2	44.4
	실업률 ¹⁾ (%)	6.8	6.5	6.6	6.5	6.6	6.4	6.4	..
	수출 ^{1,3)} (전기비, %)	18.3	-1.2	-2.0	-1.9	-0.8	0.4	0.7	-0.8
일본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8.4	5.4	8.0	6.2	5.0	2.7	2.4	2.9
	근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4.0	5.0	5.6	5.5	5.1	3.7	3.6	3.4
	GDP성장률 ¹⁾ (전기비연율, %)	1.0	1.9	4.4	4.0	-3.3	-0.4	-	-
	소매판매 ¹⁾ (전기비, %)	2.6	5.7	2.4	0.5	2.5	-1.5	1.1	-2.6
	산업생산 ¹⁾ (전기비, %)	0.0	-1.3	-1.8	1.4	-1.2	1.3	-0.9	1.4
	제조업PMI ²⁾ (기준=50)	52.1	49.0	48.6	50.0	49.2	48.3	48.3	47.9
	수출 ¹⁾ (전기비, %)	18.2	2.9	-6.4	2.4	4.7	3.8	-1.4	5.8
중국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2.5	3.2	3.6	3.3	3.2	2.9	2.8	2.6
	근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0.1	2.5	2.1	2.6	2.7	2.7	2.7	2.8
	GDP성장률(전년동기비, %)	3.0	5.2	4.5	6.3	4.9	5.2	-	-
	소매판매(전년동기비, %)	-0.2	7.2	5.8	10.7	4.2	8.3	10.1	7.4
	산업생산(전년동기비, %)	3.6	4.6	3.0	4.5	4.2	6.0	6.6	6.8
	제조업PMI ²⁾ (기준=50)	49.1	49.9	51.5	49.0	49.7	49.3	49.4	49.0
	수출(전년동기비, %)	5.6	-4.6	-1.9	-4.9	-9.9	-1.2	0.7	2.3
글로벌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2.0	0.2	1.3	0.1	-0.1	-0.3	-0.5	-0.3
	생산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4.2	-3.0	-1.6	-4.5	-3.3	-2.8	-3.0	-2.7
주:	교역량증가율 ⁴⁾ (전년동기비, %)	3.7	..	-2.1	-2.8	-4.7	..	-3.4	..
	1) 계절조정 기준								
	3) 역내거래 제외								
	5) 속보치 기준								
2) 연·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4) 상품수입량 기준									

-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조기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 약화 등으로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미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내었다.
-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국제유가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흐름, 주요국의 통화정책 운용 및 파급효과,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지표

		2022	23.9월	10월	11월	12월	24.10월	2.21일
국채금리 ¹⁾ (%)	미국(2년물)	4.43	5.04	5.09	4.68	4.25	4.36	4.67
	미국(10년물)	3.87	4.57	4.93	4.33	3.88	4.03	4.32
	독일(10년물)	2.57	2.84	2.81	2.45	2.02	2.21	2.45
	영국(10년물)	3.67	4.44	4.51	4.18	3.54	3.82	4.10
환율 ¹⁾	달러인덱스	103.5	106.2	106.7	103.5	101.3	102.4	104.0
	신흥시장국 ²⁾	49.9	47.0	46.9	47.9	48.1	47.7	46.9
	엔/달러	131.1	149.4	151.6	148.2	141.0	145.8	150.3
	위안/달러	6.91	7.30	7.32	7.14	7.11	7.17	7.19
주가 ¹⁾³⁾	전세계	605.4	656.8	636.7	694.4	727.0	722.8	747.9
	선진국	2,602.7	2,853.2	2,768.6	3,023.6	3,169.2	3,161.5	3,272.2
	신흥시장국	956.4	952.8	915.2	987.1	1,023.7	989.0	1020.6
VIX ¹⁾		21.7	17.5	18.1	12.9	12.5	12.7	15.3
CDS프리미엄 ^{1)(bp)}	신흥시장국	238.6	226.2	228.3	187.5	167.5	175.7	175.9
	중국	75.0	82.5	81.7	60.1	59.6	62.9	65.3
	한국	54.9	34.4	42.6	28.6	27.2	28.0	32.3
유가 ¹⁾⁴⁾ (달러/배럴)	WTI	80.3	90.8	81.0	76.0	71.7	71.4	79.0
	Brent	81.3	96.3	88.5	80.6	77.6	78.7	85.4
	Dubai	78.7	92.9	86.7	84.3	76.5	78.0	81.6
신흥국 글로벌펀드자금 유입 (기간중, 억달러)	-128.8	-39.5	-185.8	-45.6	57.8	55.6 ⁵⁾	237.9 ⁶⁾	

주: 1) 기말 기준
4) 협약 기준

2) JPMorgan 신흥국지수 기준
5) 23.12.28~24.1.10일 기준

3) MSCI 기준
6) 2.1~2.14일 기준

[실물경기]

□ 국내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고용은 견조한 취업자수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다. 앞으로 국내 경제는 소비 회복세가 더디고 건설투자가 부진하겠지만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 성장률은 2.1%로 지난 11월 전망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요국 통화정책의 영향, IT경기 개선 속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조정의 영향 등과 관련한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실물경제지표

	2022	2023	23.1/4	2/4	3/4	4/4	23.11월	12월	24.1월 ⁶⁾
GDP 성장률 ¹⁾	2.6	1.4	0.3	0.6	0.6	0.6	-	-	-
(민간소비)	4.1	1.8	0.6	-0.1	0.3	0.2	-	-	-
(설비투자)	-0.9	0.5	-5.0	0.5	-2.2	3.0	-	-	-
(건설투자)	-2.8	1.4	1.3	-0.8	2.1	-4.2	-	-	-
소매판매액지수 ²⁾	-0.3	-1.4	1.1	-0.3	-2.6	-0.5	0.9	-0.8	..
설비투자지수 ²⁾	3.3	-5.5	-8.8	1.3	-3.5	3.1	-2.5	5.5	..
건설기성액 ²⁾	2.7	7.7	4.6	-0.8	1.0	-2.0	-3.3	-2.7	..
수출(통관) ³⁾	6.1	-7.5	-12.8	-12.0	-9.7	5.7	7.3	5.0	18.0
- 일평균 ³⁾	(6.3)	(-6.8)	(-16.0)	(-10.1)	(-9.1)	(9.6)	(7.3)	(14.3)	(5.7)
제조업생산지수 ²⁾	1.4	-3.9	-0.9	3.3	1.8	1.6	3.6	0.6	..
서비스업생산지수 ²⁾	6.7	2.9	1.2	-0.3	0.7	-0.3	0.0	0.3	..
소비자심리지수 ⁴⁾	95.7	97.4	91.0	98.0	102.2	98.4	97.3	99.7	101.6 [101.9]
기업경기실사지수 ^{4,5)}	81	69	66	72	69	70	70	70	71 [70]
취업자수 증감 ^{3,4)}	81.6	32.7	39.7	34.6	26.3	30.3	27.7	28.5	38.0
고용률(계절조정계열)	62.1	62.6	62.4	62.6	62.6	62.7	62.6	62.6	62.8
실업률(계절조정계열)	2.9	2.7	2.7	2.6	2.6	2.8	2.8	3.2	3.0

주: 1) 계절조정, 전기비 2) 계절조정, 전기비,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기준

3) 전년동기비

6) []내는 24.2월

4) 연·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5) 제조업 업황실적 BSI 기준

[물가]

□ 국내 물가는 둔화 흐름을 지속하였다. 1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개인서비스 및 가공식품 가격 상승폭 축소 등으로 2.8%로 낮아졌으며, 근원인플레이션(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2.5%로 둔화되었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도 3.0%로 낮아졌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가격 상승 등으로 일시적으로 소폭 높아졌다가 이후 다시 완만히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연간 상승률은 지난 11월 전망에 부합하는 2.6%로 전망된다. 금년중 근원물가 상승률은 더딘 소비 회복세 등의 영향으로 지난 11월 전망치 (2.3%)를 소폭 하회하는 2.2%로 예상된다. 향후 물가경로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 국제유가 및 국내 농산물가격 움직임, 국내외 경기 흐름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물가지표

(전년동기비, %)

	2022	2023	23.1/4	2/4	3/4	4/4	23.11월	12월	24.1월 ⁴⁾
소비자물가 ¹⁾	5.1	3.6	4.6	3.3	3.1	3.4	3.3	3.2	2.8
	-	-	(1.1)	(0.6)	(1.0)	(0.7)	(-0.5)	(0.0)	(0.4)
▪ 농축수산물	3.8	3.1	1.5	0.5	2.6	7.7	7.2	7.7	8.0
▪ 공업제품	6.9	2.6	4.4	1.4	2.0	2.7	2.5	2.1	1.8
(석유류)	22.2	-11.1	-4.7	-20.2	-14.2	-3.6	-4.7	-5.4	-5.0
(석유류 제외)	4.7	4.8	5.7	5.2	4.7	3.7	3.6	3.2	2.7
▪ 전기·수도·가스	12.6	20.0	28.1	24.1	20.4	9.7	9.7	9.7	5.0
▪ 서비스	3.7	3.3	3.8	3.5	2.9	2.8	2.8	2.8	2.6
(공공서비스)	0.8	1.3	0.9	0.8	1.4	2.0	2.1	1.9	2.2
(개인서비스)	5.4	4.8	5.7	5.4	4.2	4.0	4.0	3.9	3.5
근원인플레이션율									
▪ 식료품·에너지 제외	3.6	3.4	4.0	3.7	3.2	2.9	2.9	2.8	2.5
(관리물가 ²⁾ 제외)	4.3	3.9	4.7	4.2	3.5	3.1	3.0	2.9	2.5
▪ 농산물·석유류 제외	4.1	4.0	4.7	4.3	3.7	3.3	3.2	3.1	2.6
기대인플레이션율 ³⁾	3.7	3.5	3.9	3.6	3.3	3.3	3.4	3.2	3.0 [3.0]

주: 1) ()내는 전기비

2) 시장에서의 수요·공급보다는 정부의 직·간접적 영향을 크게 받는 가격으로, 공공서비스, 전기·수도·가스, 담배, 급식 등의 가격을 포함

3)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일반인 기준), 연·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4) []내는 24.2월

[금융안정]

- 금융·외환시장에서는 미연준 조기 금리인하 기대 약화에 주로 영향받아 장기 국고채 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였다.

국내금융지표

	2022	23.9월	10월	11월	12월	24.1.10일	2.21일
국고채금리 ¹⁾²⁾ (3년물, %)	3.72	3.88	4.09	3.58	3.15	3.27	3.40
국고채금리 ¹⁾²⁾ (10년물, %)	3.73	4.03	4.33	3.70	3.18	3.35	3.47
통안증권금리 ¹⁾²⁾ (91일물, %)	3.55	3.63	3.63	3.59	3.48	3.43	3.44
CP금리 ¹⁾²⁾ (91일물, %)	5.28	4.08	4.36	4.36	4.32	4.28	4.28
회사채금리 ¹⁾³⁾ (3년, AA-, %)	5.20	4.65	4.91	4.30	3.89	4.01	4.07
(3년, BBB-, %)	11.15	11.06	11.29	10.75	10.33	10.46	10.42
KOSPI ¹⁾	2,236	2,465	2,278	2,535	2,655	2,542	2,653
원/달러 환율 ¹⁾	1,265	1,349	1,351	1,290	1,288	1,320	1,335
원/100엔 환율 ¹⁾	946	905	899	878	912	911	890
외국인 주식순매수(조원)	-11.0	-2.3	-3.4	4.3	4.0	0.4 ⁴⁾	6.9 ⁵⁾
주: 1) 기말기준 4) 24.1.1~10일 중	2) 최종호가수익률 기준 5) 2.1~2.21일 중	3) 민간신용평가기관 평균 기준					

-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의 증가세가 이어졌으나 기타대출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낮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한 리스크는 여전한 상황이다.

가계·기업대출 및 주택가격 지표

	2022	2023	23.1/4	2/4	3/4	4/4	23.11월	12월	24.1월
은행 기업대출 증감(조원)	104.8	77.4	19.0	20.8	28.2	9.5	7.3	-5.9	6.7
▪ 대기업	37.6	31.9	7.6	8.9	11.6	3.8	1.5	-2.0	5.2
▪ 중소기업	67.2	45.5	11.3	11.9	16.6	5.7	5.8	-3.9	1.5
은행 가계대출 증감 ¹⁾ (조원)	-2.6	36.9	-8.1	12.3	17.6	15.2	5.4	3.1	3.4
▪ 주택담보대출 ¹⁾	20.0	51.6	2.0	14.0	19.0	16.6	5.7	5.1	4.9
▪ 기타대출 ²⁾	-22.9	-14.5	-10.0	-1.7	-1.4	-1.3	-0.4	-2.0	-1.5
주택 매매가격 ³⁾ (%)	-4.7	-3.6	-3.4	-0.7	0.4	0.1	0.0	-0.1	-0.1
▪ 수도권 ³⁾⁴⁾	-6.5	-3.6	-4.1	-0.6	0.9	0.2	0.1	-0.1	-0.2
(서울) ³⁾	-4.8	-2.0	-2.6	-0.4	0.8	0.3	0.1	-0.1	-0.1
▪ 지방 ³⁾⁵⁾	-3.0	-3.5	-2.7	-0.8	0.0	0.0	0.0	-0.1	-0.1

- 주: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전세자금대출, 이주비·중도금대출 등 주택담보로 취급되지 않은 주택관련대출 포함
2) 일반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 상업용부동산(상가·오피스텔 등) 담보대출, 기타대출(예·적금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등) 등으로 구성
3) 전기비, 연·분기는 전기말월대비, 한국부동산원 지수 기준
4) 서울, 인천, 경기
5) 수도권 제외

[향후 정책 방향]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개선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의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물가가 목표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르고 대내외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금융안정과 성장 측면의 리스크, 가계부채 증가 추이, 주요국의 통화정책 운용 및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